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장성길 과장(2110-4792), 송지현 사무관(2110-479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 개최(11.15) 결과

* TPP : Trans Pacific Partnership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TPP 관련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15(금)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음

○ 금번 공청회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세션에서는 한국의 TPP 전략, 2세션에서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라 우리의 FTA 추진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 아·태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서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TPP가 기존의 FTA와는 차별화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협정임에 따라,

○ TPP가 우리 경제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TPP 참여 또는 불참시의 장단점에 대한 상세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함

□ 공청회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TPP 전략"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TPP 참여시의 효과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발표자인 KIEP 김영귀 부연구위원은 TPP 참여시 2.5~2.6%의 실질 GDP 증가, 불참시에는 최대 0.19%의 실질 GDP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공청회 제2세션에서는 제1세션 발표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TPP 관련 각계 전문가들간 종합토론을 진행한 이후,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들 간에 우리의 TPP 참여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 방청객들은 정부의 향후 TPP 대응방안 및 피해분야 대책 등에 대해 궁금증을 표시하는 한편, 향후 TPP 참여 추진시 농업 등 예상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TPP 관련 의견수렴을 지속하여 향후 정부 차원의 TPP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 활용할 계획임

참고 : TPP 공청회 주요결과.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장성길 과장(☎ 02-2110-47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TPP 공청회(11.15) 주요결과

1 1세션: 한국의 TPP 전략 (09:45-10:30)

❑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김영귀 KIEP 부연구위원)

o TPP 참여(가입)시 2.5~2.6%(발효 후 10년)의 실질GDP 증가, 불참시 0.11~0.19%(발효 후 10년)의 실질GDP 감소 예상

o TPP 참여시에는 (수입)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기계, 화학 순으로 증가, (수출) 자동차, 석유정제품, 섬유 순으로 증가

o TPP 불참시에는 자동차, 1차 금속, 석유제품 순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

❑ TPP 관련 한국의 전략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

o TPP 협상은 한중 FTA, RCEP 등 주요 FTA 협상과 동시에 참여 또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o 대내적으로는 TPP 참여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기존 FTA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가운데 TPP 참여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협상'에 신속히 나서야 함

❑ TPP 조기참여의 득과 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o 협정구조상 TPP는 한미 FTA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TPP의 참여 여부가 우리나라의 득실에 크게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님

o TPP 참여시 우리의 전략은 초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FTA 실익을 극대화시키는 시점에 TPP에 참여하는 것

- 현재 우리나라 FTA 실적과 정책구도에서 TPP 진전 및 조기참여가 과연 우리나라 국익과 부합하는가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

2 2세션: 종합토론 및 질의 · 응답 (11:00-12:30)

❑ 지정 토론자

o 안충영(중앙대) : TPP 창설멤버로서 가질수 있는 선점이익(특히, 투자자유화)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며, 국제규범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美, 中을 연계하는 전략적 핵심축 역할을 수행해야할 필요

o 김수동(산업연구원) : PIIE 등의 분석결과, 한국의 TPP 참여시 긍정적 효과와 불참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음. 중국의 TPP 참여가능성도 감안하면서 한·중 FTA 선행 후 TPP 참여 추진 필요

o 박천일(무역협회) : ① 역내 supply chain과 생산 네트워크 구축, ② 우리나라의 높은 중간재 수출 비중(67.6%), ③ 누적 원산지 및 통일 원산지 규정 적용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TPP 참여 필요

o 한홍렬(한양대) : 경제적 효과분석에 있어서 GDP 분석보다는 개방에 따른 비대칭성 반영을 위한 산업별 부분균형분석이 필요함. TPP 협상 타결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고 TPP 참여시 한·일간 FTA 체결 효과가 있다는 데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o 임정빈(서울대) : TPP에 대한 정보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미미한 상태에서 TPP 참여여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농업 분야 한·중 FTA 2단계 협상, 쌀 관세화, 미측의 쇠고기, 쌀 추가개방 압력 등 농업계가 가질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내 수용능력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필요

o 이해영(한신대) : 언론에 유출된 TPP 투자, 지적재산권 챕터 내용을 보면 ISD 등 한·미 FTA 조항이 범태평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향후 한·미, 한·EU FTA 등 기체결한 FTA 효과에 대해 충분한 효과분석 후 TPP에 대한 검토가 적절

❑ 질의·응답

(질의)

o 2세션 질의·응답에서는 ① TPP는 10년내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여 농업분야 피해 확대 우려 ② TPP 참여시 농업분야의 예상 피해규모 ③ 섬유산업의 경우 對베트남 수출 고려시 TPP 참여 필요 ④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 존재여부 ⑤ 농식품 수출은 대부분 식품가공업으로서 1차 농업과의 관계 미미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

(응답)

o 최동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 TPP 참여에 따른 GDP 영향분석시 농산품 분야도 포함하였으며, 농산물 피해 감안하고도 2.5~2.6% 추가성장 가능
- 지금 현재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정확히 계량화된 분석자료는 부재
- TPP 초기 참여국과 후발 참여국간의 이해관계 반영도 차이가 상당함을 감안 필요

o 안충영(중앙대)
- 농민들이 유기농 청정농산품을 생산하여 가공업자들과의 협업체계로 농식품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o 임정빈(서울대)
- 농업 분야에 대해 계량적이고 구체화된 분석 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해하며, 향후 정부연구기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 농식품 수출을 농가 소득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향후 주요과제. 끝